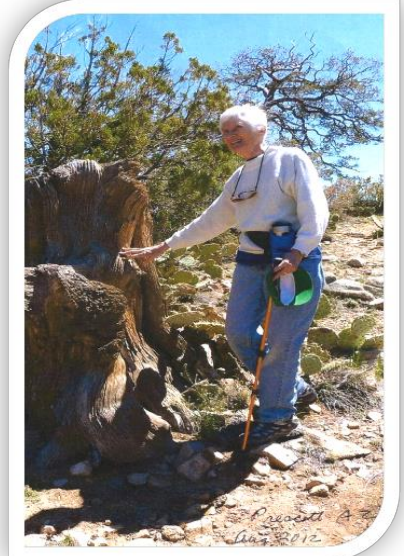




Hello, I'm Sister Barbara Miller. When I was 12 years old our family left Parma, Ohio for Phoenix where the climate was better for my mother. I wanted to be a sister since 1st grade. My teachers, my mother and my aunt, an Adrian Dominican influenced me the most. I almost changed my mind in high school because I wanted to go to ASU to swim and play softball, but God won out! On April 9, 1954 I entered at Casa Elizabeth Seton in Tucson. After two months I was on my way to Seton Hill and the beginning of my journey.



When I was in Arizona and Mexico I grew to love the Latino people.

While on mission in Arizona I worked with the Latino immigrants; taking food to men working and **living** in the orange groves, driving them to the doctor and leading Communion services for them in jail. (Most of these men would be sent back to Mexico.) All that they wanted was a better life for their families.

In June of 2013 I returned to Greensburg and moved into Ennis Hall. In August I began teaching Latinos English at Casa San Jose in Brookline two days a week for almost 2 years. It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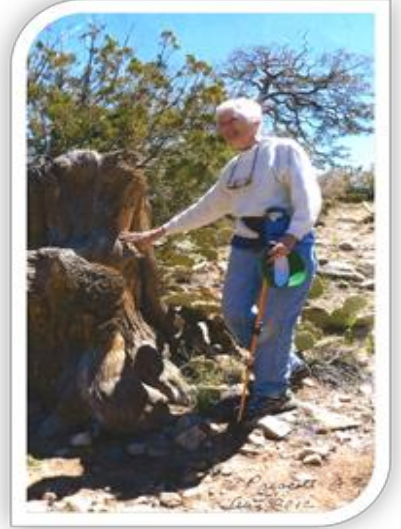
a very rewarding experience! May of this year I began to volunteer at the Archives at Seton Hill University. This is a wish of long ago come true. As an historian I thought this would be very interesting work and it is! I share pictures of the early days with the sisters at Caritas and they love it.

My return to Greensburg has brought many blessings. I love nature, the beautiful sunrises from my windows, the hikes in the hills, the snow-sled riding and the leaves in the fall. But what I love most of all is being with my friends and making new friends. It is so good to have so many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in committees, spiritual renewal, attending plays and other functions at SHU. I thank God every day for these blessings.





반갑습니다. 저는 발바라 밀러(Barbara Miller)수녀예요. 제가 12 살이던 때 오하이오주 파르마(Parma)를 떠나 어머니 건강에 맞는 기후 조건을 가진 피닉스(Phoenix)로 이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수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는데 여러 선생님들, 어머니, 그리고 아드리안 도미니코 수녀회 수녀님이었던 숙모의 영향이 컸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이 변해서 아리조나대학교에 진학해서 수영과 소프트볼을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1954 년 4 월 9 일 투산에 있는 Casa Elizabeth Seton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두 달 후에 씨튼힐로 갔고 저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리조나와 멕시코에서 저는 많은 라틴계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특히 아리조나에서 라틴계 이주민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오렌지 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불법체류자로 수감된 사람들에게 성체도 모셔다 주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로 재이송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란 건 가족들의 보다 안정된 삶, 그 뿐이었지요.

2013 년 6 월, 그린스버그로 돌아와서 에니스 홀에 살게 됐어요. 그 해 8 월에 브룩클린에 있는 Casa San Jose 에서 라틴계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보람된 일이었어요. 올 5 월부터 씨튼힐 대학교 고문서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룬 거죠!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계신 수녀님들에게 초창기 사진들을 보여줄 때면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린스버그로 돌아온 이후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저는 제 방 창문으로 아름다운 일출도 보고, 언덕을 오르내리고,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도 타고 가을엔 형형색색의 나뭇잎들도 즐긴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신나는 일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사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적 쇄신을 위한 기회도 갖고, 위원회 활동도 하고, 씨튼힐 대학의 여러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금상첨화지요! 이러한 모든 축복에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